

사회

디자인 비엔날레 작품 위에서 라면 끓여먹고 기저귀 갈고...

꿀볼건 관람객 '문화 품격' 떨어뜨린다

만지면 경고음 울리는 전자장치 설치하기도

미술품 위에서 기저귀 갈고, 라면 끓여먹고, 배드민턴치고, 걸터앉아 사진을 찍고...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장에서 출품작을 함부로 만지거나 불쌍 사나운 행동을 하는 꿀볼건 관람객들이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무질서한 관람객 때문에 가장 곤욕을 치르는 작품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앞마당에 전시돼 있는 '콤데가르송의 여정'. 패션 브랜드인 콤데가르송의 발전과 역사를 프린트된 자료와 사진으로 보여주기 위해 합판과 나무를 이용해 전시관 앞마당에 방 형태의 작은 전시실을 따로 만들었다.

하지만 운동을 나온 인근 주민들이 바람을 피울 수 있는 이 방 안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휴대용 LP가스 버너를 가져와서 라면을 끓여먹는 젊은이들까지 등장해 전시 관계자들이 기겁을 했다.

명나라 도자기 제작방법으로 만들어진 아이웨이웨이의 32여원대 대작 '필드'도 수난을 당하기는 마찬가지다. 검은 원을 그려놓은 백자로 만든 관을 한자 '전'(田)자 형태로 이어붙인 작품인데, 관 사이로 기어 들어가 노는 아이들과 작품을 만져보는 관람객이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관 위에 올라타서 사진

을 찍는 사람도 있어 관람객이 접근하면 경고음과 함께 경보업체 직원들이 출동하는 전자 장치를 설치해야 했다.

전시관 입구 외벽에 설치된 친환경 자전거 거처대 '바이크 행어'(Bike hanger)도 이상한 용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작품은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전거 형태의 페달을 밟으면 행어가 돌아가 자기 자전거를 찾을 수 있게 디자인됐다. 하지만 전시관 인근 중외공원에서 운동을 하는 아주머니들이 새로 생긴 자전거 운동기구로 착각, 올라타 몸을 푸는 장면이 심심찮게 연출되고 있다.

대나무로 만든 집 형태의 작품인 '나의 의회'는 휴게실로 착각한 관람객들 때문에 웃지 못하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이 작품은 편안하게 앉아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게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됐다. 그러나 아이를 동반한 일부 관람객이 이곳에서 기저귀를 갈기 때문에 다른 관람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심지어 기저귀를 버리고 가는 관람객도 많아, 이 작품 안에서 냄새나 기저귀를 찾는 게 전시 관계자들의 하루 일과가 됐다.

광주비엔날레 재단 관계자는 "수준 높은 관람문화는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로 만드는 첫걸음이다"면서 "기본적으로 작품은 만질 수 없고, 체험 가능한 작품은 도슨트가 미리 설명해주기 때문에 전시 관계자들의 안내에 잘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오광기자 kroh@kwangju.co.kr



하천 추락 펌프카 견인

지난 7일 오전 8시40분께 광주시 동구 선교동 용연정수장 인근 교각에서 펌프카를 끌고가던 견인차량이 승용차와 합착차 등 차량 2대를 잇따라 추돌한 뒤 3m 아래 하천으로 추락, 4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함바비리' 유상봉 징역 2년

서울동부지법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법장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함바(공사현장 식당)' 수주 등과 관련해 경찰 수뇌부 제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회라 당시 경찰청장 등 7명에게 3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1억4000여만원을 배임증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수의 공직자에 많은 액수의 뇌물을 제공해 공직자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바 식당의)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관련자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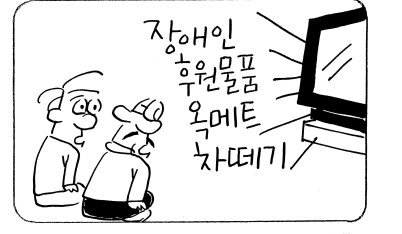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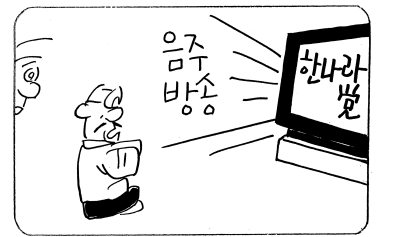
의 친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업계에서 경쟁했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유력 인사들에게 함바 수주나 민원 해결, 인사 등의 청탁과 함께 역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유씨 진술에 따라 강회라 전 경찰청장, 최영 강원래드 전사장, 배건기 전 청와대 검찰팀장 등 금품 로비의 대상이 됐던 이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브로커 유씨에게서 수천만원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수남(51)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에 추징금 200만원, 상품권 800만원 몰수 등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니원침 (8412) 김종두



"은행이 잘못준 돈 돌려줘야"

남부경찰, 환전 실수로 더 건넨 돈 끌꺼 40대 조사

은행 직원이 환전(換錢) 실수로 잘못 건넨 돈(광주일보 8월 3일 6면)을 사용한 40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9일 은행이 실제보다 10배 가량 많은 돈을 환전해 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받아 쓴 양모(45)씨를 횡령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7월26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남구 모 은행에서 550만원을 홍콩 달러로 환전하던중 은행 직원으로 부터 실제 받아야 할 4만3000달

러보다 약 10배 많은 40만3000달러(약 5400만원)를 받아간 뒤 이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양씨는 환전 직후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은행을 빠져나간 뒤 홍콩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탕진한 돈 가운데 일부를 은행에 돌려주었으며, 나머지는 이달 중순께 갚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밀실 만들어 리모컨 조정

성매매 알선 업주 구속

목포경찰은 9일 여중업원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홍모(40)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성매매수남 장모(3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6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목포시 산정동에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여중업원을 고용한 뒤 성매매 전담자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결과 홍씨는 업소 내에 리모컨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밀실을 만들어놓고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홍씨 명의의 계좌주적을 통해 부당 수익 여부를 확인한 뒤 환수 조치하는 한편,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부취재본부=고구석기자 yousou@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구출 기도회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회장 이원재 목사)는 9일 오후 광주시 남구 노대동 광주한빛교회에서 '통영의 딸 신숙자씨 모녀 구출 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기도회에는 교인들과 함께 경남 통영현대교회 방수열(49) 담임 목사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박 목사는 통영이 고향인 신씨와 그의 두 딸이 북한에 생존해있다는 사실을 확인

한 뒤 송환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42년 통영에서 태어나 1960년대 독일에 간호사로 활동하던 신씨는 그곳에서 유학중인 오길남 박사를 만나 결혼해 두 딸을 낳았다.

이후 신씨 부부는 지난 1985년 북한 유안에 의해 딸들과 함께 입북했으나 오박사만 탈출에 성공, 신씨 모녀는 북한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수용소에 끌려가는 등 고역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목포경찰은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선거법)로 이호균(50) 전남도의회 의장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해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도의회 버스를 이용, 목포시

내 경로당 노인 255명에게 도의회 방청과 함께 전남도청 전광대 등 관광을 시켜주고 수백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목포선관위가 수사의뢰했다.

이 의장은 또 음식제공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식사비 등을 다른 부서 업무 추진비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형기자 golee@kwangju.co.kr

성매매 보호비 명목 후배 돈 뜯음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성매매업소 운영을 의논하러 온 후배를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폭력조직 조직원 장모(32)씨와 김모(33)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8월 24일 밤 10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은행 앞에서 집창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는 김모(32)씨를 협박해 1500만 원을 뜯어내는 등 총 6회에 걸쳐 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업 계획을 의논하기 위해 동네 선배인 조폭 김씨를 찾아갔으나 이들은 거꾸로 보호비를 요구하며 "장사하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협박.

/이중형기자 golee@kwangju.co.kr

"법원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양승태 대법원장 밝혀

양승태 대법원장은 9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법원에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 참여재판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KBS TV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서로 터놓고 이야기함으로써 소통을 하면 신뢰가 쌓일 수 있다"면서 이 같은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법원이 실제 잘못하고 있으면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고칠 것이고 법원이 잘하고 있는데 국민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실재를 알려서 오해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적된 이른바 '뒤는 판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뒤는 판결"과 "소신 있는 판결"은 종이 한 차이지만,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 많아지면 법이 불안정해지고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1심 무죄 선고로 논란을 빚는 '선재성 부장관사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은 없지만 대법원장의 발언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보석조건부 영장제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한 것으로 지금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연합뉴스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국방부, 기무사 간부 2명 수사

지난달 초 발생한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사건과 관련해 군과 경찰이 해킹 혐의자의 물증을 확보하고 일부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조사본부장 승장재 소장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킹 사건의 수사상황을 묻는 안규백 의원(민주당)의 질문에 "3회에 걸쳐서 범행을 했는데 마지막(9월 2일) 범행만 자백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 인력을 파견해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승 소장은 당사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9월2일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물증을 잡았는데, 나

머지 2회(8월29일과 9월1일)에 대해서는 정확한 물증은 없다"면서 "여러 가지 정황을 잡아서 추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8월29일과 9월1일, 2일 세 차례에 걸쳐 조선대 모 교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조선대 포털사이트 등에 접속하는 등 해킹한 혐의와 관련해 기무사 간부 2명을 수사 중이다.

안 의원은 범행에 쓰인 IP 주소를 제시하면서 9월2일 사건은 광주의 한 PC방에서 모 교수의 논문파일을 빼갔으며, 앞의 두 사건은 서울 송파에서 인명파일을 훔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조사본부는 현재 9월2일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세상의 빛이 다 같은 빛은 아니다. "눈에 익숙한 빛"과 "눈에 유익한 빛"은 분명히 다르다

- 돈잡는 반디의 대표적인 특징
- 1. 쉬운설치, 저렴한 설치비용
 - 2. 가시광선의 전영역을 반사(조명의 질적향상)
 - 3. 최대 50~100%의 조도향상
 - 4. 전기요금 최대 50%절감
 - 5. 눈부심 차단효과로 시력보호기능
 - 6. 자외선 차단효과로 피부노화방지
 - 7. 친환경제품(PP, PET소재로 100% 재활용 가능)
 - 8. 변색이나 오염이 없는 반영구적인 제품



돈잡는 반디의 대표적인 설치장소

광주지역 : 한빛고시학원, 갈려리존, 대림물류센터, 청연한방병원, 뒷밭, 양동시장 외 다수
 기타지역 : 송파도서관, 제주한화리조트, 인제대학교, 우체국, 오뚜기, 이마트성수점
 홈플러스 강서점, 700마켓, 롯데마트, 서울대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인천국제공항.

(주)우림네트웍스
 062-251-9792
 www.donbani.com